# 고 3 수험생 어머니의 입시준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others' Experiences with Children Preparing a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전임강사 양 성 은*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Yang, Sung-Eun

〈Abstract〉

The study reported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interviews with 19 mothers who had a child preparing a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mothers experienced in supporting their child in his/her study for the examin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senior year in a highschool" was described as the most stressful period affecting all the family members. Mothers' experiences were portrayed from three perspectives: mothers, as family members, experiencing the attachment to her child but conflicts with her husband; mothers, as individuals, adjusting by trying to setting realistic academic goals for her child while supporting him/her physic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and mothers, as critics to extrafamily systems, blaming the inconsistency of educational poli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holistic view, and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s between traditional ideology about the mother roles and socioeconomic contexts when interpreting mothers' supporting their child in study for a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주요어(Key Words) : 대학입시(college entrance examination),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 Ⅰ. 서 론

한국 가족에게 있어 자녀교육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교육을 통해 입신을 강조하는 뿌리 깊은 유교적 전통이 역사적 배경으로 존재하며,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는 활발한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계층상승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학력과 학벌주의를 등장시켰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강화되어온 가족주의(familism)는 자녀의 사회적 성공이 가족 전체의 계층상승으로 이어지는 심리사회적 기제가 되어왔다(Yang, 2002: 11). 그러므로 현재 우리 가족의 목표가 사회적 성공과 직결된다고 여겨지는 자녀의 일류대학 진학이 된 것은 필연적 결과라고 추정된다.

* 주 저 자 : 양성은 (E-mail : seyang@chosun.ac.kr)

자녀의 대학입시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 특히 어머니의 노력에 대한 기존의 문헌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전통적 어머니상(像)을 강화하는 관점에서는 어머니들이 수험생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사랑, 봉사, 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일상을 자녀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모두 할애하며, 만족을 지연한 채 근신하고, 구복(求福)적 종교활동까지 마다하지 않고 수험생활을 지원한다(김명자, 1994; 이미정, 1994: 이영숙·박경란·전귀연, 1999; 신기영·옥선화, 1997). 비록 연구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가지는 애정적 결속과 헌신적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거룩한 모성"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왔다.

이와는 달리,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촉구하며

희생과 봉사로 신비화된 어머니상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담론들이 한편에서 뒤를 잇고 있다(김선미 · 이기영, 2002: 심영희, 1996: 윤택림, 1996: 이재인, 2004: 장혜경 · 김영란, 2000: 조옥라, 1999). 이러한 비판은 모성신화에 대한 해체야말로 현대적 어머니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출발점이라고 간주한다. 이들은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들이 자녀를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계층상승을 위해 자녀의 성적과 대학 진학, 이에 직결되는 사회적 성공의 책임을 어머니 역할로 받아들인다고 보았다(윤택림, 1996). 어머니들이 행하는 자녀 뒷바라지는 가부장제도 하에서 약자인 여성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전략으로서(Puka, 1993), 남편과 시댁에 대한 권력확보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찰적 자아(Gilligan, 1982)를 찾지 못한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희생적 봉사와 정서적 지원을 통해 어머니 역할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교육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자녀의 대학입시를 지원하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처럼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일부는 어머니를 가부장제도 하의 희생자로 보고, 의존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묘사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앞서 지적한 "거룩한 모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이타적 사랑을 전제하고,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 비용, 에너지, 노력 등에 감탄한 채 자녀 뒷바라지 이면에 존재하는 심리사회적 역동을 간과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질문지를 통해 어머니들의 외현적인 자녀 지원 행위에 초점을 둔 양적연구들이다. 이제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의 독특한 가족개념, 자녀관, 성역할 등이 고려된 보다 유연한 맥락중심관점이 필요하며, 통계적 기술에 의존한 피상적 수량화를 넘어서서 가족과정(family process)에 대한 심층적 이해(in-depth understanding)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해에 대한 탐구는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조용환, 1999). 현상학적 연구는 특정 현상에 부여하는 사람들의 해석과 의미를 명료화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관념, 느낌, 동기, 신념 등을 그들이 처한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Schwandt, 1979).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의 본질적 특성은 수험생 어머니들의 입시준비라는 현상을 우리 문화 안에 맥락화하여(contextualized) 통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 3 수험생 어머니들이 자녀의 대학입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내적변화, 가족체계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족외체계와의 관계를 현상학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녀의 대학입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 3 수험생 가족이 겪는 경험을 어머니의 관점을 통해 현상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접근이란 동일한 현상을 경험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그 경험이 가진 핵심(essence)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철학적 관점이자 방법이다(Van Manen, 1990). 개인의 경험을 통해 특정 현상의 핵심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에 대한 개인의 기억, 이미지, 의미, 인식 등이 강조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특정현상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지 탐색하고자 이들의 일상생활 경험을 생생히 묘사하기 위한 질문들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였다.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고 3 수험생의 어머니들로서, 이들은 "자녀의 대학입시"라는 현상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이다. 선택준거에 따른 임의표집(purposeful selection based on criteria, Goetz & LeCompte, 1984)에 의거해 고 3 수험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 19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선택준거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 3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혼이나 재혼 경험이 없는 핵가족의 어머니로 규정하였다.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등의 재학생 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인문계 수험생의 입시준비 경험에 연구의 초점을 두기 위함이다. 또한 이혼이나 재혼 경험이 없는 양부모핵가족을 선정함으로써 "자녀의 대학입시"라는 현상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비동거 확대가족과의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들의 평균연령은 44.6세이며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7.2세였다. 어머니들의 최종학력은 대학졸업자가 11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7명, 그리고 중학교 졸업자가 1명이었다. 19명의 연구참여자 중 16명이 전업주부였으며, 전일제 취업이 1명, 반일제 비정규직 취업이 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수험생 자녀의 성별은 아들이 11명이고 딸이 8명(사례 03, 05, 08, 12, 14, 15, 17, 18)으로 구성되며, 모두 대학교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Creswell(1998)은 질적연구의 참여자 수에 관한 논의에서, "현상학적 연구에 있어 최소 2시간 이상의 심도 깊은 면접을 할 경우 10명의 연구참여자는 타당한 수"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Patton(2002)도 질적연구가 갖는 타당성, 유의미성, 그리고 통찰력은 연구참여자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연구참여자가 얼마나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자가 이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자녀의 대학입시"라는 현상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있음을 상기할 때, 19명의 연구참여자는 현상학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상의 충분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고 3 수험생 어머니들의 일반적 특징

| 사례 | 나이 | | 교육정도 | | 직업 | | 가계수입 | 거주지 |
|---|---|---|---|---|---|---|---|---|
|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 |
| 01 | 47 | 49 | 고졸 | 고졸 | 반일제 | 회사원 | 약 400만원 | 동부이촌동 |
| 02 | 48 | 48 | 대졸 | 대졸 | 반일제 | 사업 | 약 2,000만원 | 목동 |
| 03 | 43 | 47 | 대졸 | 대학원졸 | 전업주부 | 교수 | 약 400만원 | 일산 |
| 04 | 41 | 45 | 대졸 | 대학원졸 | 전업주부 | 교수 | 약 500만원 | 잠실 |
| 05 | 47 | 47 | 고졸 | 대졸 | 전업주부 | 농협근무 | 약 300만원 | 일산 |
| 06 | 39 | 43 | 고졸 | 고졸 | 전업주부 | 사업 | 약 600만원 | 쌍문동 |
| 07 | 47 | 49 | 대졸 | 대졸 | 전업주부 | 회사원 | 약 400만원 | 과천시 |
| 08 | 47 | 51 | 대졸 | 대졸 | 전업주부 | 회사원 | 약 350만원 | 연희동 |
| 09 | 48 | 51 | 대졸 | 대학원졸 | 전업주부 | 회사원 | 약 500만원 | 목동 |
| 10 | 42 | 42 | 고졸 | 고졸 | 전업주부 | 회사원 | 약 200만원 | 구로동 |
| 11 | 46 | 50 | 대졸 | 대졸 | 전업주부 | 회사원 | 약 400만원 | 미아동 |
| 12 | 45 | 45 | 대졸 | 대졸 | 전일제 | 회사원 | 약 500만원 | 일산 |
| 13 | 47 | 50 | 대졸 | 대졸 | 전업주부 | 회사원 | 약 350만원 | 청담동 |
| 14 | 46 | 48 | 대졸 | 대졸 | 전업주부 | 회사원 | 약 400만원 | 연남동 |
| 15 | 42 | 44 | 중졸 | 고졸 | 전업주부 | 제조업 | 약 250만원 | 부천시 |
| 16 | 44 | 47 | 고졸 | 고졸 | 전업주부 | 교사 | 약 350만원 | 신월동 |
| 17 | 44 | 48 | 고졸 | 대학중퇴 | 전업주부 | 공무원 | 약 450만원 | 상일동 |
| 18 | 43 | 45 | 대졸 | 대졸 | 전업주부 | 회사원 | 약 400만원 | 길동 |
| 19 | 42 | 48 | 고졸 | 고졸 | 전업주부 | 회사원 | 약 300만원 | 상일동 |

## 2. 자료수집

Kvale(1996: 5-6)는 면접을 "구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화"로 정의하면서, 면접자가 면접대상에게 연구하고자하는 현상과 관련된 일상세계를 묘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특정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Holstein과 Gubrium (1995)도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전문가는 연구자가 아닌 연구참여자라고 전제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특정 현상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성화 시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Kvale(1996)가 제안한 현상학적 자료수집 방식에 입각하여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Kvale는 면접자가 면접상황을 정의하고, 제어하며, 질문에 대한 면접대상의 대답을 비판적으로 따라가야만 철저하게 검증된 지식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보조원과 함께 평균 2시간이 소요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 Denzin, 1994)을 획득하였다. 면접 장소는 연구참여자들의 자택(16명)이나 인근 커피숍(3명)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특히 면접 실시 기간을 2004년 대입수능시험이 실시되기 2주전부터 수능시험 전날(2003년 10월 21일~11월 4일)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수험생 어머니로서의 절정경험(peak-experiences)을 "지금-여기(here-and-now)"의 관점에서 묘사하도록 설계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고 3 수험생 어머니의 입시준비 경험이라는 현상을 탐색하기 위해 어머니 개인의 내적과정과 함께 수험생을 지원하면서 나타나는 가족내 역동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들이 개념화하는 고 3 수험생활이 무엇이고, 자녀의 입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개인이 인식하고, 느끼고, 실천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무엇이며, 자녀의 입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확대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가족외체계와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나, 특정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폐쇄형 질문을, 추가 정보가 요구될 때는 추적질문을, 면접이 진행된 다른 사례들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는 대조질문도 함께 사용하였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사되어 Kvale(1996, 187-203)가 제안한 5개의 면접분석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용어로 표현한 면접자료는 간결한 의미단위로 전환되는 의미함축(meaning condensation)을 거쳐 범주화(meaning categorization) 된다. 범주화에 의해 탈맥락화 되었던 면접자료는 다시 면접 당시의 시간적, 공간적 상황 내에서 재구성 되어 자체의 줄거리를 가진 의미구조화 (meaning structuring through narratives)에 이르게 되고, 궁극적으로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문화적 틀 안에 재맥락화 됨으로써 의미해석(meaning interpretation)에 도달한다. 이 과정에서 수치, 도형, 순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절충하여 의미창출(meaning generation through ad hoc methods)을 보완한다.

본 연구는 Kvale의 면접분석방법에 따라 먼저, 각각의 연구참여자가 수험생 어머니로서 행하는 일, 경험하는 갈등, 대처하는 방식,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감정, 태도, 가치관 등에 주목하여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다음에는,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단위와 특정 사례에서 나타나는 또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의미단위를 범주화 하였다.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이 경험한 입시준비과정의 전체적 구조가 구체화됨에 따라, 이를 현재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연계하여 해석함으로써 연역적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량화, 비유 사용, 도표를 통한 시각화를 실시하여 분석의 정교화를 높이고자 하였다.

### 4. 연구절차의 타당화검증

Creswell(1998: 194)은 질적연구가 신뢰롭게 수행되었음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과정의 타당화검증(verification)을 제안했다. 양적연구의 신뢰도(reliability)나 타당도(validity)와는 달리 질적연구의 타당화검증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 과정(value-laden process)을 평가하며, 질적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타당화검증은 부적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이다. Miles와 Huberman(1994: 134-137)은 부적사례분석을 설명하면서, 잠정적 이론모델이 성립된 후 그 이론모델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치되는 사례를 발견하여 이론모델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리적 연계를 보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험생 어머니의 입시준비 경험에 관해 잠정적인 이론모델을 도출한 후 이 모델에 의거하여 역(逆)으로 전체 사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론모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예외사례에 주목하고, 이러한 예외사례들이 갖는 독특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여 전체 이론모델의 정교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Guba와 Lincoln(1985)이 제안한 참조자료의 사용(referential adequacy materials), 동료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peer debriefing), 반성적 일지쓰기(writing reflective journal)를 실시하여, 질적연구의 신뢰도(credibility)와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위한 참조자료로서 녹음테이프 및 연구참여자 신상에 관한 문서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여 자료다원화(data triangulation)를 시도하였다. 또한 동료전문가들을 선정하여 분석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견제하도록 하고, 이들의 관점과 조언을 경청하였다. 끝으로, 연구설계 단계에서 지녔던 시각이나 가설들이 실제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형상화되며, 발전되어 갔는가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한국 가족의 생활주기에서 하나의 발달과업으로 규범화된 자녀의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입시준비 과정에서 고 3 수험생 가족이 겪는 경험을 어머니의 관점을 통해 현상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고 3 수험생활"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색하였다. 다음에는 입시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가족체계, 어머니 개인체계, 그리고 가족외체계로 구체화하여 고찰하였다. <표 2>는 연구참여자들이 입시준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Kvale의 분석방법에 따라 의미함축, 의미범주화, 의미구조화로 나누어 중심주제를 도출해 제시한 것이다. Kvale가 제안한 의미해석과 다양한 전략을 절충한 의미창출의 단계는 「연구결과」의 본문과 「논의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진다.

<표 2> Kvale의 분석방법에 따른 고 3 수험생 어머니의 입시준비 경험에 관한 중심주제 도출

| 의미구조화 | 의미범주화 | 의미함축 :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 |
|---|---|---|
| 중심현상에 대한 개념화 | • 고 3 수험생활에 대한 정의적 개념 | • "고3이라는 그 자체가 병이잖아, 병." |
| 가족체계 | • 고 3 가족에 대한 묘사 | • "우리 집은 모든 게 다 수능 끝나고로 미뤄놨어, 일단은."<br>• "가족의 모든 사람이 생활을 거의 포기하는거죠. 온 가족이 매일매일 숨 죽이고 조마조마한 상황이죠." |
| | • 가족 전체의 지지 | • "가족이 뒤에서 성원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br>• "가족들 화합 문제인거 같애. 항상 삼위일체가 되는거지." |
| | • 어머니-고 3 자녀와의 관계 | • "애하고의 정신적인 밀착이라고 할까?"<br>• "더 돈독해지지.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지." |
| | • 아버지-고 3 자녀와의 관계 | • "아빠는 애들한테 관심 없어요. 나한테 '열심히 뒷바라지 하냐?'고 그러죠." |
| | • 부부관계 | • "요샌 같이 안 자."<br>• "남편도 많이 찬밥으로 되더라구요." |
| 어머니 개인체계 | • 고 3 자녀에 대한 뒷바라지 | • "저 처음으로 막 코피 터지고 그랬어요... '나 고 3 엄마 됐다. 이 정도는 해야돼' 하는 심리도 있구요. 다 남도 했으니까." |
| | • 어머니의 생존전략 | • "다른 돌출구가 엄마도 있어야 되요."<br>• "일단 엄마가 편해야 아이를 편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 |
| | • 뒷바라지의 한계 | • "실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br>•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고 밥만 해 주는 밥순이." |
| | • 뒷바라지에 대한 후회 | • "후회가 되죠. 내가 엄마로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
| | • 심리적 합의 과정 | •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도 결과에 그냥 승복하고..."<br>• "우선 본인 만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
| 가족외체계 | • 확대가족 | • "'고3이 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집안 행사에는 다 빠져요." |
| | • 고 3 어머니 모임 | • "처지가 똑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위로가 되죠."<br>• "정보교환이 잘 되진 않아요. 경쟁, 그런 걸로 생각해서." |
| | • "강남"에 관한 지역의식 | • "빨리 강남으로 이사 가야했는데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br>• "강남에 있으면 그런 거에 휩쓸리기 쉬워요. 안 좋은 것 같애." |
| | • 입시정책 | • "너무 많이 교육이 빨리빨리 바뀐다는 것! 그냥 좀 내버려 두지." |

### 1. 고 3 수험생활에 대한 정의적 개념

본 연구에 참여한 수험생 어머니들은 고 3 수험생활을 일종의 질병 또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병리적 상태로 개념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고 3"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스트레스, 압박감, 고통, 지옥, 공부와의 전쟁, 인내, 기도, 수능, 대학입시, 학원, 대학 등을 반복하여 제시했다. 특히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면접 과정 중에 한번 이상 사용함으로써, 고 3 수험생활을 특징짓는 중심개념으로 등장하였다. 다음은 고 3 수험생 시기를 정의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다.

고 3 이라는 그 자체가 병이잖아, 병. 아주 그 스트레스 병이잖아. 왕 스트레스. (#16)

고 3? 고 3은 사람이 아니지. 그게 사람이야? 잘 거 못 자고, 할 거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그런데 어쩌겠어. 다들 그렇게 고 3을 보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01)

## 2. 고 3 수험생활과 가족체계

연구참여자들은 입시준비가 고 3 수험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 전체가 관여되는 과업이라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고 3 아이 중심으로 무엇이든 맞추어 가려고(#06)" 하는 과정에서 의식주에 관련된 가정관리활동, 가족여가활동, 친족일 등은 차순위로 밀려난다. 고 3 수험생에 대한 뒷바라지 외에 다른 가족관련활동은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01)"라는 선언 속에서 간과되거나 미루어진다. 고 3 가족에 대한 묘사를 보면, 수험생우선주의라는 원칙 아래 가족상호작용은 경직되고 긴장감에 얼어붙어있으며(frozen), 다른 가족구성원의 욕구들은 억압되고 해소되지 못한 채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올해는 그런 거 다 삼가기로 했어요. 가정, 아빠에 대한 생각, 이런 거는. 아이가 힘들어 할까봐서 다 미뤘어요. 가정적인 거는 다 미루었어요. (#15)

> 가족의 모든 사람이 생활을 거의, 뭐라고 그럴까? 포기하는거죠. 우린 텔레비도 볼 수 없고, 자는 것도 일찍 자지 못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힘이 될까 해 가지고 같이 있는 편이죠. 마음이 무척 긴장이 되고 수험생이랑 똑같아요... 아버지도 퇴근해 가지고 눈치를 보고, 작은 애한테 신경 써 줄 여력도 없고, 일단 수험생이 제일 크니까. 온 신경을 지금 다 큰애한테 쓰고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숨을 죽이고, 고 3 애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다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자꾸 조심스럽게 우리가 눈치를 보게 되고... 고 3 짜리를 두는 거는 매일매일이 숨죽이고 조마조마한 상황이죠. (#10)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고 3 가족"이라는 표현 속에는 단순히 가족구성원 중에 수험생이 있다는 의미를 너머서서 가족 전체가 입시준비에 전적으로 매달려야한다는 당위성을 함축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은 수험생 개인이 학업에만 열중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사불란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 그게 꼭 고 3 만이 아니라 가족들 화합 문제인 것 같애. 가족들 화합. 결과는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서 애를 편안하게 해줘야 공부하는거지. 애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항상 삼위일체가 되는거지. (#16)

> 혼자 헤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족이 뒤에서 성원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전부 같이 신경 써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또 사실 아이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12)

자녀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측면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어머니와 고 3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 고 3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상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먼저, 모든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이 고 3 한 해 동안 수험생 자녀와 더 친밀해졌다는데 동의했다. 이는 "고 3이 되면서 오히려 엄마는 엄마대로 더 참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기 때문에 엄마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18)"라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아들하고는 더 돈독해졌지. 더 돈독해지지. 내가 아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힘든 부분들을 이해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기대 어긋나게 안 할게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아들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지. (#16)

> 서로 더 많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까"하고 한 번 더 바라보면, 딸도 자기 공부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아유, 엄마, 엄마 힘들어? 힘들면 미안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서로 그렇게 얘기 해주면서 한 번 더 눈 마주치고 서로 기대요. (#08)

어머니와 고 3 자녀가 수험기간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아버지와 고 3 수험생과의 관계는 갈등과 소원함으로 대표된다. 예외적인 사례 09("아이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아빠")를 제외하고, 모든 어머니들은 수험기간 동안 아버지들이 보인 물리적 부재와 심리적 거리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가족역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양육자인 어머니들에 비해 시간적, 물리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했던 아버지들은 자녀가 고 3이 되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는 고 3 자녀와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아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 3 자녀에게 개입하거나 또는 아내에게 수험생 뒷바라지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 개입이나 위임은 "부-모-고 3 자녀"간의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중재자 역할을 떠맡게 된 어머니들에게 역할과중을 야기하며, 부부간의 갈등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 [애 문제로] 많이 다투었죠 (웃음). 아무래도 애가 아빠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이 안 차니까, 조금씩 참다가 결국에는 터지는 거예요. 아빠가 애를 야

단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거지, 엄마 자존심이. (갑자기 박수를 치며) 다 잘 모르면서 그때 그 상황만 보고 애를 야단치니까. 평상시에 애한테 관심도 없고 저러다가 어느 일면만 보고, 앞 뒤, 머리 꽁지 다 떼버리고 단면만 갖고 화를 내고 야단만 치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막 치밀어 오르는... 애가 잘못한 거 나도 물론 인정하지만 그거 가지고 야단치는, 평상시에 무관심 했던 그런 분노가 쌓여서 남편한테 화가 나요. 그래서 항상 언쟁이 일어나요... 아빠는 애한테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자꾸 내색하면 애하고 트러블 생기고 그러니까 본인이 컨트롤 하는 걸로 일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출장도 더 많이 가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든 그걸 내색 안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결과 가족과 너무 멀어지는거에 익숙해진 것 같아서, 이게 내년 되면 다시 제자리로 매이크업 될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 걱정도 잠깐잠깐 되는데... 일단은 애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미루고 있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근데, 아빠가 한 일은 그 정도인 거 같아요 (웃음). 그거를 또 자기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더 나서고 그랬으면 내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나 사실 듣기 싫죠. 저는 듣기 싫어요. (#04)

화가 나도 애한테 직접 안하고 나를 야단쳐. 그러니까 애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화가 나서 "너 때문에 아빠한테 엄마가 야단맞아서 되겠냐" 그러는데... 아빠는 애를 어렸을 때부터 다독거리고 이런거 없었어요. 밖의 생활이 바쁘니까 애는 내가 키우는 거, 신경을 별로 안 썼지. 그래서 내가 한번은 "의붓아버지냐? 어쩌면 그러냐!"고 했지. (#05)

아이를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남편한테... 이제 남편도 이 시간만은 고 3 아이 하나만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바쳤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사회생활이 있고 하니까, 우선 사회생활이 남편한테 중요하죠. 그래도 무엇보다 진짜 한 몇 개월, 요 수능 볼 때, 요 수능 볼 때만큼은 조금 우리 애하고, 우리 집안 시간을 좀 맞춰달라는 거죠. 아이하고 가정에 조금만 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거예요. 밖에 약속 두 번 잡을거를 한번은 가족한테, 그냥 이번만큼은 고 3이 있으니까... 그냥 가족한테 조금 더 눈 맞추고, 밥 먹을 시간을, 조금 더 일찍 오고 그러면 딱 좋을텐데. 애가 좋은 거죠... 최근에 애가 시험 성적 보고 울길래, 남편한테 전화해서 "조금 일찍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왔어요. 딸이 문 잠그고 있는데 그 속 타는데, 아이! 저도 울고 우리 애도 울었어요. 남편이 그때... 아휴, 말 못해요. 그거는... (#08)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입시준비가 고 3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가 노력해야하는 가족과업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수험생 자녀를 지원하리라고 기대했던 남편은 오히려 고 3 자녀와 갈등을 유발하거나 또는 갈등 회피를 위해 아내에게 책임을 맡긴 채 가족외체계 활동에 더 몰입한다. 아버지의 물리적, 심리적 부재로 결국 어머니들이 고 3 자녀의 뒷바라지를 전적으로 떠맡게 되며, 남편의 암묵적 동의 하에 어머니들은 수험생의 뒷바라지를 부부관계 보다 우선순위로 놓게 된다. 이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부부의 잠자리나 남편의 식사 준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로 표현된다.

[부부 사이에] 달라진 거 있어요. 잠자리가 달라요. 요새 같이 안자 (큰소리로 웃음).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갖겠다고 아침 일찍 나가요, 아침 6시에. 그리고 일찍 자요. 나는 애 챙겨 잠자리에 보내고 나면 새벽 2시쯤 자요. 이 사람이 나간다고 5시쯤 일어나서 부스럭대면 시끄러워서 내가 깨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난 여기 마루에서 자요 (웃음). 그래서 요즘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도 못 챙겨먹고 그냥 부지런히 나가요. (#03)

잠을 같이 안자는 편이지. 같이 많이 안자지. 그게 부부관계가 달라진 거 같애. 큰딸이 고 3 이었을 때는 그 애 방에 있었지. 딸은 공부하고 나는 그 애 침대에 누워 있다가 공부 다 끝나면 항상 애를 재워주고 안방에 왔으니까. 이번에 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거실에서 주로 자지... 부부 간에도 대화가 안 좋아진 상태지. 별거 아닌 거 얘기하면서 자꾸 격양된 마음이 되고. 인제는 아예 무슨 말을 못 붙이니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아예 안 부딪치려고. (#16)

### 3. 고 3 수험생활과 어머니 개인체계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의 일상은 고 3 자녀에 대한 "뒷바라지"로 점철된다.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역할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책임지는 가사노동자의 역할이 있는데, 특히 고 3 기간 동안 자녀의 보신(補身)을 위한 요리사 또는 영양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학교나 학원이 가깝더라도 가능

하면 자녀를 자가용으로 실어 나르는데, 이 시간 동안 자녀가 조금이라도 수면을 더 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자녀와 대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 운전수 역할을 자청한다. 학교나 학원의 교사, 다른 고 3 어머니들, 인터넷 등을 통해 입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수집가 역할, 고 3 자녀의 과외교습이나 학원 스케줄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 고 3 자녀가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학습에 집중하는지 감독하는 감독자 역할, 심리적으로는 수험생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치어리더의 역할,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역할까지 다양하다. 수험생 자녀에 대한 뒷바라지는 자녀를 위한 외현적 행위 뿐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의 스케줄에 동참하면서 스스로의 근신과 절제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 보통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학교 7시쯤 가구요. 애들 0교시 수업이 있어서. 그리고는 학교수업이 4시 30분에 끝나면 집에 와서 과외 있는 날은 과외하고, 학원가는 날은 학원가고, 그리고 도서실 가서 한 12~1시 정도 오고. 저요? 아침마다 애 데려다 주구요. 오전에는 좀 자거나 운동하고 오후에는 볼일 보고, 그리고 애가 오면 애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너 시 이후에는. 개 학교 올 때 먹고, 먹을 때 옆에 있고, 학원 갈 때 데려다 주고, 과외 할 때 방 밖에서 보고, 또 선생님들 시간조정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요. 아이 스케줄에 따라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처음 일학기 때는 애가 일찍 가고 늦게 자고 이러니까, 애랑 같이 한 몇 달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웃음). 힘들어, 힘들더라구, 정말. 저 처음으로 막 코피 터지고 그랬어요, 일학기 때. 내가 리듬이 깨져 가지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좀 나아지고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다 남도 했으니까... (#04)

> 애가 공부하면 나는 거실에서 졸더라도 나와 있어요. 나라도 나와서 거실에서 책도 보고, 졸더라고 거실에 나와 있으려고 해요. 애가 들어가서 자라고 해요. 그럼 말이래도 "미안해서 어떻게 들어가니. 엄마가 미안하지. 졸더라도 여기서 공부하는데 마음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그런다." 막 이러면 "엄마가 보태주는 게 아니라니까, 들어가서 침대에서 편히 자지." 그러면서도 싫은 기색은 아니더라구요. 지가 엄마의 마음을 읽는거지. (#09)

> 절에 100일 기도 다녔지. 절에 한번 딱 가면 난 하루에 3000배를 했어, 3000배를. 진짜 이 무릎이 막 멍이 들어가지고, 피멍 들 정도로 했어, 진짜... 그래도 그런 부분을 아예 입도 뻥긋 안하고, 절에 갔다 와도 아예 모르게 했지. 엄마가 아들 위해서 이런 거 하면 부담 느끼잖아. 난 엄마니까 아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의식 안해야 되고, 내가 뭐 쪼금이라도 애를 위해서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16)

어머니들은 이러한 역할과중 속에서 스스로 견뎌내기 위한 생존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해소는 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자녀의 입시준비를 보다 더 잘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물론 스트레스 해소라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고 3 자녀의 고생에 동참해야한다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 밥 해주고 7시에 학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아빠 출근 시키는게 8시. 혼자 큐티[Quiet Time, 기독교의 성찰시간]하고, 전화도 하고 아니면 약속 만들어서 점심 먹고 들어오고... 나는 주로 약속을 많이 만들었어요, 오히려. 나도 스트레스 쌓이니까. 내가 스트레스 안 쌓이는게 나를 돌보는 길이니까. 그래야 애한테 "내가 너만 믿고 있는데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말 나오지 않지... 하지만 4시 30분엔 죽으나 사나 들어와요. 애가 5시에 와서 저녁 먹고 또 학교에 가야하니까. 고시간 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전에는 들어와요. 그래서 먹이고 학교 또 데려다 줘요. 그때가 6시야. 그러면 또 저녁 준비하고... (#09)

> 지금은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거를 해소한다, 그런 거 자체도 사치스럽죠. 그런거 생각할 겨를이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지,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이보다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좀 더 적지요. 어쨌든 아이가 너무 혹사하는 거 같고 딱해요. (#10)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대학입시 결과를 "엄마로서 그동안 자녀를 키운 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18)"으로 개념화하며, 자녀의 성적을 어머니 역할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모든 걸 바쳐서 수험생 자녀의 뒷바라지에 몰입하게 한다. 그러나 수험생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한 역할과중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거나 또는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 어머니들은 실망과 분노를 경험한다.

> 심지어는 애가 화장실 가서 빨리 안 나와도 그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노크를 할 정도로... 애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덜 불안하지 안하고 나와 있으면

불안하고 그러죠, 부모 입장으로서. 하여튼 "감시"라고 하면 뭐하지만,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고 그런거 보면 딱하기도 하고, 시간이 아까와서 공부 좀 했으면 하고 속이 타기도 하고 그래요. (#10)

이제 새벽 1시 30분에 잤다 그러면 내 눈에서 불이 좀 나지. "왜 이렇게 일찍 자냐! 이제 웬만하면 두시 돼서 자라" 이래가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애가 자기 전까지 [거실의] 불을 켜놔요. 왜냐면, 애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껌껌하니까 또 잠자고 싶거든요. 그래서 애가 자기 전에는 불을 안 꺼요. 애가 잘 때, 두시에 딱 내가 불을 꺼요. 불 끄는 담당이라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딴 엄마도 다 그럴거예요... 애가 막 생각했던 만큼 못해줬을 때, 진짜 정말로 스트레스 쌓이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속에서 불장이 나고... 막 어떤 날은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 애들을 잘 키우는 엄마들을 봤을 때는 애가 괘씸한 마음도 들어요. "야, 내가 뭐 그렇게 못해줘서 너는 요거 밖에 안되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진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애하고 부대끼는 일이 많더라고. (#17)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근신과 절제의 일상을 감수하면서 수험생 뒷바라지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의 노력과 성적에 좌절을 경험한다. 그러나 한편, 어머니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뒷바라지에 한계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실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프지 않게 하고... 고 3 정도 되며는 누가 옆에서 시켜서 되고, 그래서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시 고 3이 되도 어떻게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능력이 요 정도고 (웃음), 내가 할 수 있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또 이런 상황이 되도 이렇게 밖에 못해요. (#03)

부모의 무력감 (웃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고 밥만 해 주는 밥순이. 아이만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 잔소리도 못하고 아이가 [공부]해 주기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쪼끔 한마디 하고 싶은데, 10번 참다가 한마디 하려고 할 때 아이가 과민반응을 보이면, 그때 진짜 아무 것도 할 게 없구나, 부모가 도대체 뭔가... 여러 종류의 무력감이 있어요. 아이를 도와줄 수 없는 무력감도 있고, 또 아이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를 내 스스로 삭여야 하는 그런... "나는 무력하고 잘 모르는가"하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09)

연구참여자들은 어머니 역할의 한계를 자각하는 동시에 자신이 수험생 자녀의 뒷바라지를 좀더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와 자책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후회와 자책은 다른 어머니들과 비교해서 자녀에게 좀 더 나은 사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 좀 더 극성스럽게 뒷바라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 또는 구복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지금 생각하면 애한테 맡기지 않고 좀 쫓아다녔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가 좀 남아요. 내가 어머니로서 잘한 게 없어요. 아무 것도.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당에 가서 백일기도 드리는 것도 못 했어요. 사실 엄마들이 지금 마악 백일기도니, 정말 다른 엄마들은 굉장히 그래요. 저만 이렇지. 저는 아무 것도 잘한 게 없어요. (#02)

남들도 다 학원 보내는데 학원 안보내기 그렇고... 또 보내도 좀더 좋은 학원에 보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환경이 남들처럼 잘 안되고 그럴 때 부모로서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가슴 아프고 그렇죠. 남들처럼 좋은 학원, 비싼 과외 시키지 못한 게 후회가 되죠. 강남 사는 사람처럼은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이 투자했어야 했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제대로 투자해 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네요. (#10)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자녀의 입시준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의 기대와 자녀의 실제 학업성취능력 간의 괴리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기대"와 "점점점점 무너지는 꿈(#17)"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락가락을 반복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실제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기대를 수정하는 일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며, 어머니 역할이 지니는 한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뒷바라지가 부족했다는 자책감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실망, 좌절,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이 동반되는 힘든 적응임을 고백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연구참여자들은 "이제는 다 마음을 비워버리고(#16)" 자녀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기를(#03)" 바라는 궁극적인 심리적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고 2까지는 선생들도 모두 "애는 머리도 좋고 착실하고 잘 할꺼라"고... 근데 애가 막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는 애가 아니니까. 성적표를 받으면 고

2까지는 그래도 "니놈이 맘만 먹으면...(웃음)" 이게 부모가 평생을 속고 사는 거예요 (웃음)... 성적에 일희일비해요. 모의고사 잘 봐가지고 오면 "아, 이정도면 뭐 가망 있겠다" 했다가 또 안 그러면 며칠이 우울하고... 마지막인 지금도, 지금도 자식한테 바라는게, 어제도 오락실 갔다 와서 걸린 놈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때 조금 잘 봐서 그래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들지 않을까... 성적 자체가 또 딱 포기해 버리긴 아까운 점수예요 (웃음). 그러니까 후회가 남는다는게, 어휴, 애를 좀더, 학원도 팍팍팍 바꾸면서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해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남는게... 지금 수능 열흘 남았거든요. 이 열흘 동안 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02)

부모, 내 욕심이죠. 자식이 이만큼 해주길 바라는 것, 여기까지 해줬으면 하는 욕심이죠... 저도 바라는 것이 있죠, 있죠! 남들 하는 만큼, 남들 하는 것보다, 남들 가는데 나도 자식 일류대학 갔으면 좋겠고, 내 딸이 최고였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애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거예요... 애한테 너무 최고를 바라지 않는 것. "너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애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최고를 바라지 않았죠. 애한테 너무 스트레스 안 주는거죠. 웃기죠? 고 3 엄마가 이렇게 마음 태평하게, 하하하 (웃음)... (#08)

애가 생명공학 쪽으로 간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가라, 그쪽은 배고프다"고 했더니 자기는 연구하는 쪽이 취향이래요. 그러면, 제 욕심 같아서는, 그쪽으로 가서 대학원을 의대로 가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본인이 만족하고 좋아서 하면, 우선 본인 만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애들이 커서 이기주의자처럼 자기만 알지 말고 나가서 봉사도 좀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범하고 소박하게. 애들이 크니까 소박해져요. (#19)

### 4. 고 3 수험생활과 가족외체계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의 가족외체계에 관한 경험은 이들의 확대가족과의 관계, 다른 고 3 어머니들과의 모임, 입시과 관련된 강남-비강남에 관한 지역의식, 그리고 거시적인 입시정책에 관한 비판으로 나타난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확대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입시가 자녀나 어머니에게 "면책특권"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3 자녀가 학업스케줄을 이유로 명절이나 기타 친인척 행사에 빠지는 것이 용인되면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는 어머니 역시 자녀와 함께 확대가족에서 오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시아버님 생신이었는데 시댁에서도 못 오게 하는(#16)" 경우처럼 어느 정도 확대가족과의 상호합의 속에서 이루어진다.

올해 추석 때는 시댁에 못 갔어요. 추석 때 애가 자기는 못 가겠다구 그러더라구요. 자기가 불안해서 애는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못 갔어요. 아빠만 갔다오고... (#03)

추석이나 이런 가족행사에는 아이는 안가고... 아이가 안 가니까 남편만 가게 되죠. "고3이 빽"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걸로 모든 걸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더라구요 (웃음). (#04)

고 3 수험생 어머니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족외체계로 학부모 모임을 들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고 3 수험생 어머니들과 교류하면서 입시에 관한 실용적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자녀 뒷바라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배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고 3 수험생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지닌 정보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모임에 속한 고 3 자녀가 각기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사실 고 3 엄마들이 문을 안 열더라구요(#19)"라는 표현처럼 학부모들 간에 "실제로 유용한 정보는 나누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규칙이 있음을 드러냈다. 결국 고 3 수험생 어머니들의 모임은 실용적인 정보교환의 장(場)이라기보다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목적을 갖고 유지되는 심리사회적 지원체계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수험생 어머니들과 만남으로써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는 스트레스도 동시에 경험한다고 고백하였다.

모이면 우리 애가 어쨌고, 강남은 어떻다더라 하는 그런 걱정... 자기 애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 안 하는데, 힘들고 그런 거, 부모들의 심정, 그런 거는 서로가 얘기하고 조금 위로 받기도 하고 그러죠. 처지가 똑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위로가 되죠.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애만 그런 게 아니라 "고 3은 다들 똑같구나" 하고 위안이 되고 그래요. 속 타는 심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얘기 많이 하죠. 도움을 얻는다기 보다 서로 처지가 비슷하고 지금 나름대로 다 같으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그냥 서로가 지금 속 타는 심정은 똑같으니까 얘기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낫죠. 가끔은 다른 애들은 시험

잘 봤는데 우리 애가 잘못 봤을 때, 그럴 때 더 속상하고 막 병나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장단점이 있어요. (#10)

엄마들이 가끔씩 전화가 오고하는데, 별로 정보교환하고 그런 게 없더라구요. 다들 어쩌 자기 딸만 성공시키고 싶은가, 혼자만 알려고 꽁꽁 싸매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전화를 해봐도 "아우, 우리는 뭐 그냥," 이러기만 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17)

고 3 자녀의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머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지역간 격차에 관한 것이다. 이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뽑아보면 역시 목동, 강남과 서초구, 송파구 애들이 많아요.(#02)"라는 표현 속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하는 "강남"이란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나타낸다기 보다는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와 유명학원이 편중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전체 연구참여자 중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 4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비강남권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었다. 비강남권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은 강남권과 비교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끼며 이에 대한 불안,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등을 표현했다. 이들 어머니들은 학원밀집지역인 대치동의 예를 언급하며, "애를 대치동으로 매일 실어 나를 수도 없고(#07)"라는 표현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강남권에 거주하는 어머니들 역시 지역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들은 강남의 과열된 사교육과 치열한 경쟁의식을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문화에 휩쓸림으로써 혼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빨리 강남으로 이사 가야 했는데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웃음).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애들 저 학년 때 진짜 여러 번 강남으로 이사 갈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매스컴에서 일부러 강남 빨리 가야겠다는 불안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저두 소신을 가지고 있다가 텔레비전을 보면 소신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12)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괜히, 맨날 엄마들 무슨 과탐, 사탐 신청하느라 우르르 가고 우르르 오고.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요, 강남에 있으면 그런 거에 휩쓸리기 쉬워요. 그래서 나는 고 3 엄마들하고 그런 얘기 일부러 안 하는데, 사람 마음이 한두번 들으면 아무래도 쏠리긴 쏠리는 것 같애요. 너무 학원이 많은 동네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초지일관하기가 힘들어요. 난 안 좋은 것 같애. (#13)

끝으로,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은 거시체계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현 입시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목해야할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어느 특정 입시제도를 선호한다기 보다는 입시정책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08)" 자체를 힘들어한다는 점이다. 어머니들은 빈번히 바뀌는 입시제도 때문에 자녀의 수험준비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일관된 정책이 지속되기를 소망했다.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아이구 (한숨).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거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그걸 연구해 가지고 어떤게 좋다 해서 2차가 나오도록 해야하는데, 하나 하고는 바꿔버리니까. 여러 사람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지. 어느 좋은 걸 하나 택해서 연구해서 이것저것 해봐야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 바뀔 때마다 어느걸 중심으로 공부 시켜야 되는 거냐구? 언제 또 바뀔지 모르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과외를 안 시킬 수가 없어. (#05)

잘해보겠다고 이리저리 주물러 논게 더 엉망인 거 같아요. 좀 멀리 보고 여유를 갖고, 교육이 백년대계라는데, 매년마다 교육부 장관 바뀌고 정권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또 잘된 게 없잖아요. 그냥 좀 내버려 좀 두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는 판단이 안서요. 7차 교육과정 바뀌면서 나아지는 거 같지가 않아요. 현장은, 현장은 그렇게 이상대로 가지 않고... (#03)

## Ⅳ. 논의점

본 연구는 한국가족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규범화된 자녀의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고 3 수험생 가족이 겪는 경험을 어머니의 관점을 통해 현상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고 3 수험생활"을 일종의 병리적 상태로 개념화하며, 수험생 우선주의라는 원칙 아래 가족 전체가 참고 노력해야 하는 스트레스 시기로 보았다. 자녀의 대학입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족상호작용은 부모와 고 3 자녀의 삼각관계로 특징지워진다. 즉, 어머니와 고 3 자녀가 정서적 밀착을 보이는데 반해 아버지는 어머니와 고 3 자녀의 연합에 맞서 물리적 부재, 심리적 거리감, 또는 갈등을 야기한다. 어머니들은 수험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과정에서 역할과중에 시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뒷바라지에 후회와 자책감을 갖는다. 어머니들은 마침내 자신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수정하면서 "자녀가 실제로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합의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이러한 심리적 합의가 어느 시점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적응과정임을 고

백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수험생 자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확대가족과의 상호작용, 다른 고 3 학부모와의 관계, 강남-비강남으로 대변되는 지역의식, 그리고 거시적인 입시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녀의 대학입시"라는 현상이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어떠한 독특성을 갖는지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산층의 모성이데올로기(Glenn, Chang, & Forcey, 1993)"나 자아정체성의 근원을 "관계적 자아(Gilligan, 1982)"에 두는 어머니들의 전형적인 심리구조, 그리고 가부장제도 하의 생존전략인 "종속으로서의 보살핌(Puka, 1993)" 등의 개념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윤택림(1996)은 "중산층 모성이데올로기(Glenn, 1994)"를 한국적으로 해석하면서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들이 자녀를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 학력이라는 전제 하에 자녀의 성적과 대학 진학, 이에 직결되는 사회적 성공의 책임을 어머니 역할로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어머니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취약한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댁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교육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윤택림(1996: 101)이 결론 내린 "교육중독증에 걸린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능적 부재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가족관계상의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Gilligan(1982)이 주장한 "관계적 자아"가 본 연구의 고 3 수험생 어머니들에게도 관찰되었다. Gilligan에 의하면, 어머니들은 자아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반을 자기 자신보다 타인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자신의 생활중심을 자녀에게 둠으로써 자녀와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이 관계적 자아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수험생 자녀에게 행하는 타인중심의 희생적 봉사와 정서적 지원 역시 관계적 자아를 드러낸다. 이는 성찰적 자아가 미발달되어 자기 자신보다 타인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가부장적 사고와 전통적 성별분업을 수용하는데 원인이 있다.

또한, Puka(1993)가 주장한 "종속으로서의 보살핌" 개념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녀 뒷바라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Puka는 가부장적 문화권에서 약자인 여성이 행하는 타인을 위한 봉사는 해방으로서의 보살핌이라기보다 일종의 생존전략으로서의 보살핌이라고 보았다. 어머니들이 가족 내 자신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처럼 희생적이고 열렬히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인 자녀의 일류대학 진학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들이 보이는 "보살핌"을 중산층 모성이데올로기에 입각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화되어온 무한한 희생과 사랑의 어머니상(像)에 대한 신화를 해체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의 이론적 개념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어머니들의 자녀 뒷바라지라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창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 어머니들의 입시준비 경험에 대해 기존의 관점이 간과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고 3 수험기간 동안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정서적 결속력과 강한 유대를 형성한다. 아버지와 고 3 자녀가 소원해지거나 갈등상태에 놓이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어머니와 자녀의 밀착,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함은 자칫 가족의 역기능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남편과의 팀워크(teamwork)를 통해 자녀의 입시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자녀의 입시준비에 좀더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녀와의 친밀감을 강화하기를 바랬다.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고 3 자녀에게 시간, 에너지, 애정을 좀더 투자함으로써 자신이 중간자 역할을 하지 않아도 둘 간의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바램은 자녀의 대학입시를 가족 전체의 과업으로 개념화 하고, 전체 가족구성원의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점에도 드러난다.

둘째, 고 3 수험기간 동안 어머니들은 암묵적 합의 속에 확대가족에서 수행해야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진다. 며느리가 자녀교육을 논하는 이상 대부분의 친족일이 면제됨으로써 며느리들이 자녀교육을 시댁과의 권력관계에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심영희, 1996)이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이러한 면책기간이 고 3 수험기간 동안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었다. 사실상 확대가족이 가지는 권위에 비해 고 3 수험생을 지원하는 기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며느리에게 약 1년간의 수험기간 동안 친족일을 면제 시키는 정도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또한 친족일로부터의 의무 면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들은 수험기간이 끝난 후 자녀의 대학입시 결과에 따라 확대가족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어머니들이 자녀의 대학입시를 수단으로 확대가족에게 권력을 행사할수록 입시결과에 대한 책임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셋째, 고 3 수험생 어머니들은 자녀의 실제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기대를 수정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궁극적으로 자녀가 원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심리적 합의에 도달한다. 자녀가 일류대 인기학과에 진학함으로써 가족의 계층상승과 특권을 유지하고 어머니의 보상심리를 채워준다는 견해(고인순, 김경신, 2001)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능력, 소질, 소망을 보다 중요시하게 되는 최종적인 심리내적과정을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입수능시험이 실시되기 직전 2주일 동안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어머니들이 토로한 수험생활 막바지의 절정경험을 획득할 수 있었다. 결국 어머니들은 자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어머니의 욕심이나 강요가 아닌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Yang & Rettig, 2004).

넷째, 고 3 수험생 어머니들은 다른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입시를 지원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어머

니들의 모임이 건전한 사회참여 보다는 치맛바람, 과도한 촌지, 과외열풍의 온상 등(김선미, 이기영: 2002)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아온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은 어머니 모임이 입시전략이나 사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계층의식을 유지하는 장(場)이라는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임에 속한 어머니들 간의 경쟁의식이 협력을 방해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어머니 모임의 주된 기능은 동병상련을 통한 정서적 지지라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 수험생 뒷바라지에서 겪는 역할과중, 남편과 고 3 자녀간의 삼각관계 중재, 그리고 내적인 무력감 등을 위안 받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체계로서 어머니 모임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가족 및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지적한 강남-비강남권의 대립적 구분은 비강남권 어머니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며, 강남권 어머니들에게는 과도한 사교육 경쟁에 휩쓸리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한 목소리로 입시정책의 비일관성을 비판하는 점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시체계 수준에서 이러한 비판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통해 고 3 수험생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 접 수 일 : 2005년 01월 14일
□ 심 사 일 : 2005년 02월 07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3월 22일

## 【참 고 문 헌】

김명자(1994). 대입 수험생 가족의 전반적 현황 및 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자녀교육열과 대학입시(85-122)**. 서울: 하우.

고인순 · 김경신(2001). 고 3 수험생 어머니의 스트레스 인지,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65-90.

김선미 · 이기영(2002). 인적자원활용관점에서 본 전업주부정책. **한국생활과학회지, 11(1)**, 13-29.

신기영 · 옥선화(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삶에 나타난 전통, 현대, 탈현대. **한국여성학, 12(2)**, 1-41.

윤택림(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 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2)**, 79-117.

이미정(1994). **수험생가족의 디스트레스, 자원, 우울증과의 관계분석**.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숙 · 박경란 · 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신정.

이재인(2004). **한국기혼여성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서사유형과 결혼생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혜경 · 김영란(2000). 전업주부의 심리 · 정서적 안녕과 갈등예방을 위한 제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조옥라(1999). 21세기의 가족형태와 모성.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 "21세기와 여성문화."** http://www.sungshin.ac.kr/~kowoin/d_2b.htm

조용환(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Creswell, J. H.(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 CA: Sage.

Denzin, N.(1994). The art and politics of interpretation. In Denzin, N. & Lincoln, Y.(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500-515). London: Sage.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lenn, E. N., Chang, G., & Forcey, L. R.(1993). *Mothering: Ideology, experience, and agency.* New York: Routledge.

Goetz, J. & LeCompte, M.(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Guba, E., & Lincoln, Y.(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Holstein, J. A., & Gubrium, J. F.(1995). *The active interview.* Thousand Oak, CA: Sage.

Kvale, S.(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 CA: Sage.

Miles, M. B. & Hurber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2nd ed).* Thousand Oak, CA: Sage.

Patton, M. Q.(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 CA: Sage.

Puka, C.(1993). The liberation of caring: A different voice for Gilligan's different voice. In Larrabee, M. J.(Eds.). *An ethic of care: Feminist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230-250). New York: Routledge.

Schwandt, T. A.(1997). *Qualitative inquiry: A dictionary of term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Human science of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Yang, S.(2002). *Korean-American mothers' meanings of academic success and their experiences with children in American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Minnesota.

Yang, S. & Rettig, K. D.(2004). Korean-American mothers' experiences in facilitating academic success for their adolescents. *Marriage and Family Review, 36(3/4),* 53-74.